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 석 무



‘불신 시대’, ‘불신 사회’ 참으로 어는 것 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오늘의 사회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불신의 수렁에 빠진 분야는 바로 ‘정치 불신’이다. 지위가 높고 책임이 무거운 지도자일수록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하는 짓마다 국민을 속여먹는 작전에 능숙해 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정치 혐오증에 걸려 무조건 정치인은 싫고, 정치는 타기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정치 없이는 나라도 안 되고 세상도 돌아가지 않음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것처럼 정치를 혐오하는 이유가 어디서 왔단 말인가.

지검도록 거짓말만 하던 자유당 독재의 12년, 정권 연장을 위해 억지로 헌법을 고치고, 그것도 부족해 역사에 없는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 국민의 분노로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 독재는 무너졌다. 정치 불신이 이제나 가실까 여길 때, 5·16쿠데타로 정치 불신과 사회 불신은 가속화의 길을 걷고 말았다.

군에 복귀한다는 약속을 뒤집고 정권을 잡은 쿠데타 주역의 식인(食言)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나라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국민을 속이는 정권 연장이 계속되고,

신조어인 ‘변의(變意)’라는 추악한 용어가 신문을 도배하면서 정치에 믿음을 갖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3선 개헌의 그 엄청난 정치 속임수에 영구 집권의 ‘유신’까지 선포됐다.

집권과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아질 필요가 없다는 몰상식이 통

하면서 정치 불신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2012년의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몇 개월, ‘안철수 현상’은 바로 이런 정치 풍토에서 탄생한 부산물이며, 메시아를 갈망하던 민중의 열원이 모인 바람이자 희망이었다.

진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짓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여길 때 정당이 싫고, 구정치인도 싫고, 거짓은 더욱 싫다는 국민의 마음을 뒤흔들여준 사람이 바로 안철수라는 우람한 정치 신인이었다. 순진하고 때 묻지 않은 신인이 꼭 정치를 잡히려 하는 확신도 없으면서, 믿음이 가고 거짓

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여론조사 수위를 달릴 수 있었다.

이제 그는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정권 교체와 아권 단일화라는 시대적 대의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그 많은 지지자의 불참증과 애통 속에서 미련 없이 사퇴를 결행했다. 대단한 일이다. 정치는 그래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이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그는 장엄하게 뜻을 접었다.

그의 사퇴 변이 너무나 좋았다.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말씀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린 적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멋진 말이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았다면, 어떻게 이 나라와 사회가 이렇게 무서운 정치 불신에 빠져 있었는가. 공자(孔子)는 오래 전에 말했다. 먹을 것이 많은 것보다, 강한 군대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국민이 정치를

믿어주는 일이라고 했다.

공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불행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불신의 깊은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한국 정치의 장래는 어둡다. 여기에 한철기의 청신한 바람을 불어넣어 준 안철수 현상, 약속을 지키겠다고 대통령의 꿈도 접어버린 결단, 그런 싸고 움에서 우리의 미래가 설게되어야 한다.

정치를 꾸꾸는 사람에게서 그런 믿음의 정치가 어떤 것보다 상위 개념의 ‘가치’라는 생각, 그 점 하나로도 안철수 전 후보는 위대한 정치라는 선물을 우리 국민에게 선사하였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이튼날 6·3세대라는 우리, 식인·변의라는 기반적인 정치에 얼마나 치를 떨었던 세대였는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본연의 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속임수에 걸려들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속고 또 당했던가.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에 또 속아, 그 뒤로도 5·6공의 군인들에게 우리는 또 얼마나 당했던가.

1987년 양금(兩金)의 단일화 실패에 우리는 또 얼마나 불행했던가.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大義)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서운함을 접고 다시 뛰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는 일뿐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대적 큰 가치의 하나다.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류 한 호

텔레비전 토론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후보자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 토론에 따라 선거의 흐름이 뒤바뀌기도 하고, 당락이 결정되기도 한다. 얼마 전 끝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공화당 롬니 후보에게 숨가쁘게 쫓겼던 것도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밀렸던 탓이다. 1960년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텔레비전 토론을 상대보다 월등하게 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월 4일 저녁, 국민들은 한편의 드라마를 기대하며 대통령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을 지켜 보았다. 그러나 제1차 토론은 끝내 별다른 일 없이 싱겁게 끝났다. 이정희 후보가 있었으면 대답이나 나누는 자원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토론 막는 대선후보 TV토론, 형식 바꿔야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문제인 후보가 상당히 우세한 토론을 하긴 했으나, 선거의 흐름에 변화를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관세에 변화가 없다면 제1차 토론의 결과는 박 후보의 관정승 줌으로 볼 수 있겠다.

약간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제인 후보는 상황 반전을 위해 강한 공격적 토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는 공격보다는 신사다운 품격을 지키려 했으며, 상대방의 질문을 성실하게 받아 적고, 모범답안 수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생동감 있는 자기 언어를 보기 어려웠다. 한편, 이정희 후보가 박 후보를 강하게 공격하는 바람에 문 후보는 싸움을 걸고 방어하는 불편한 일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싸움판에 나가서 조용히 있다가 돌아옴으로써 그 싸움을 하나마나 한 것이 되고 말았으며, 결국 1차 토론을 낭비하고 말았다.

박근혜 후보는 토론에서 명백하게 패한 것은 아니지만, 토론을 잘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토론시간 내내 예상문제에 따라 남이 미리 써준 글을 읽기에 급급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

고, 당연히 질문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에 따라서는 답을 읽으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음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정희 후보의 날선 공격에 표정과 말투가 바뀌는 등 심리적 평정을 잃기도 했다. 그동안 그가 토론을 기피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화면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토론에 대한 평가는 보통 정책 이슈에 따라 후보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후보들은 토론을 얼마나 세련되게 잘했는지, 토론에 임하는 후보들의 준비상태나 태도는 어땠는지 등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그러나 필자는 토론의 형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토론이 이처럼 생동감 없이 전개된 중요한 이유는 선수들이 너무 비좁은 운동장에서 뛰었다는 점이다. 토론은 후보를 사이의 치열한 정치적 정책적 논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싸움이 벌어질 공간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빼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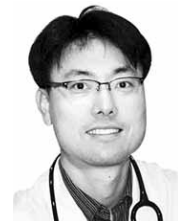
이번 토론의 기본 포맷이 1분짜리 짧은 질문에 1분 30초에 간단히 대답하도록 구성되

었다. 추가질문이나 추가답변, 상호 자유토론과 심층토론은 원칙적으로 봉쇄되었다. 후보자의 발언순서는 사회자가 헛갈릴 정도로 자주 바뀌었다. 질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1분 30초에 하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추가질문이 불가능하니 상대가 엉터리 대답을 해도 제동을 걸 수가 없다. 개그맨들이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개그맨들도 웃을 수밖에 없는 난센스다.

상대 후보와의 심층토론과 자유토론은 텔레비전 토론의 핵심이다. 심층토론을 해야 상대방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고, 자신이 제시하는 정책의 약점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정책과 인물의 장단점과 우열을 판단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처럼 심층토론이 배제된 기형적인 토론 포맷을 채택한 것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일지도 모른다든 의심을 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다음주에 이어지는 제2차 토론부터는 ‘토론을 막는 엉터리 토론’ 포맷은 폐지되고 상호심층토론이 가능한 개방적 구조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한번 정해진 토론형식은 바꿀 수 없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토론선진국인 미국도 할 때마다 그 형식을 바꾼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의로 칼럼



우 용 안

얼마 전 중견 텔레트 사미자씨가 방송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빠른 조치로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자칫하면 생명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고혈압은 전세계 성인인구 3명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다가 나이가 들면 전반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사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릴 만큼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혈압체크를 잘 안 하면, 고혈압임을 알지 못해 상당 기간 혈압이 높은 상태로 방치된다. 그러다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고혈압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 정기적인 혈압 체크를 통해 혈압을 관리하고, 혈압이 높은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고혈압은 완치가 되는 질환이라기보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고혈압 자체보다는 혈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의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한 혈압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혈압관리는 의사들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목표혈압’을 정해주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제를 처방해주면 환자가 약물 복용을 통해 적정혈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10년 통계청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43%정도만이 목표혈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를 받은 고혈압 환자 10명 중 5명은 혈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고혈압 합병증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약 60% 정도는 한 가지 약물로 혈압관리가 어려워 두 가지 이상의 혈압약을 복용해 혈압을 관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두 가지 성분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약물을 각각 복용하는 것보다 복합제를 복용하는 것이 혈압관리가 더 잘 된다.

현재 국내에 출시돼 있는 고혈압 복합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된 한 약제는 이전에 사용하던 치료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단일 제제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10명중 8명을 목표 혈압에 도달시키는 등 우수한 혈압강화효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

해당 신문이나 상품 정보가 스마트폰에 즉시 열리기까지 한다. 이 원리를 이용해 농작물 질병 모양, 혹은 가축의 질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면 해당기관에서 연구하고 확인해 즉시 어떤 질병이며, 어떻게 처방하면 된다는 식의 답을 내려주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일일이 질병의 상태를 말로 설명하고 대답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절약하고, 특히 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질병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특히 해당 농가에까지 직접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화상 통화 시스템으로 농촌의 환자들을 원격지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보고 진단하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농작물은 컴퓨터 앞에까지 가져올 수 없으므로 이것은 스마트폰이 딱 맞은 것이다. 이제는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모든 농민과 농촌관련 기관에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한 디지털 농업 아닐까.

▲이기현·광주시 북구 용봉동

시설

시립미술관 소장품 ‘광주의 컬러’ 갖춰야

광주시립미술관 컬렉션(소장품)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대표 미술관으로서 광주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명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컬렉션을 구축하지 못한 때문이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 현황’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이 올해 책정된 예산 7억 원 중 6억3000만 원을 들여 작품 64점을 구입했다고 한다. 미술관 측은 지역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원로 및 작고 작가의 작품, 미술관 소장품의 격을 높이는 국내외 유명작가 작품 등 규정에 맞춰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1점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故) 오지호, 고 김환기 등 지역 유명 원로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없어 명품 컬렉션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지난 9월 광주아트페어 활성화를 위한 작품 구입에 1억8000만 원을 쓴 만큼 나머지 4억 5000만 원으로 미술관의 격을 높이는

유명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1992년 전국 최초의 지방 공립 미술관으로 개관, 20년이라는 연륜에도 ‘콘텐츠가 없는 미술관’ ‘이름 뿐인 미술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립미술관이 이처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데는 시민들의 무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는 시립미술관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1%가 “미술관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미술관의 자존심은 소장품에 있고, 소장품을 보면 미술관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시립미술관은 지금이라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대표 미술관답게 차별화된 컨셉을 설정하고,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시도 구색 맞추기식 예산 배정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지원해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예산 삭감 객관성 기하라

광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시 예산안에 대해 심의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폴리디자인사업 20억 원 전액과 LED(발광다이오드)시범도시 조성비 15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한다. 환경복지위원회도 ‘희망나눔 봉사재단’ 출연금 9억8320만 원을 깎았다.

희망나눔 봉사재단은 광주시가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찾아내고, 민간의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기로 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2부 리그로 강등된 프로축구단 광주FC의 지원 예산 25억 원 중 2억5000만 원을 줄여 ‘이중고’가 예상된다.

각 상임위의 예산 삭감은 지난해 42건, 240억 원에 달한 예에 비추어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상당 액수가 깎일 것이란 전망이다. 시의회는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해 사법비 과다, 효과 미흡 등 타당성이 없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

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사업부서와 남구청 등이 ‘행정 발목잡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다. 심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라내는 건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대로 검토했는지 상기해야 한다.

과거, 감정이 개입되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삭감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의원 대다수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돼 집행부에 발목이 잡힌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집행부 역시 불멘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삭감됐선 안 될 사업이라면 회의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예결위원회에서 살려내면 되는 일이다. 낭비성·산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로비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던 게 어제오늘의 일인가. 의회와 집행부는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직시해야 한다.

無 等 鼓

최근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 아쉬움과 그리움을 뒤로하고 그는 또 다른 꿈을 위해 마운드를 내려왔다.

박찬호는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로서 17년 동안 동양인 최다승(124승)을 거두며,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로 실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줬다. 또 조국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 아시안게임,

월드컵, WBC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동을 전해 줬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거라는 스포츠 맨으로서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줬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좌절에 굴하지 않고 노력과 투혼으로 슬럼프를 극복했고,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였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마지막 선수 생활을 조국과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국내에 돌아와 마무리 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국민들은 30여년간의 마운드 생활을 접고 퇴

장하는 그에게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박찬호가 은퇴를 선언한 날 박재홍(SK)과 통산 102승을 거두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박명환(LG)은 팀에서 방출됐다. 박찬호와 동거인 박재홍은 구단의 은퇴와 코치 연수 제의를 거절하고 현역 연장의 뜻을 굽히지 않아 타 구단 입단을 타진하고 있다.

두산의 간판스타 김동욱(두산), WBC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동을 전해 줬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거라는 스포츠 맨으로서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줬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좌절에 굴하지 않고 노력과 투혼으로 슬럼프를 극복했고,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였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마지막 선수 생활을 조국과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국내에 돌아와 마무리 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국민들은 30여년간의 마운드 생활을 접고 퇴

장하는 그에게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박찬호가 은퇴를 선언한 날 박재홍(SK)과 통산 102승을 거두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박명환(LG)은 팀에서 방출됐다. 박찬호와 동거인 박재홍은 구단의 은퇴와 코치 연수 제의를 거절하고 현역 연장의 뜻을 굽히지 않아 타 구단 입단을 타진하고 있다.

두산의 간판스타 김동욱(두산), WBC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동을 전해 줬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거라는 스포츠 맨으로서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줬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좌절에 굴하지 않고 노력과 투혼으로 슬럼프를 극복했고,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였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마지막 선수 생활을 조국과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국내에 돌아와 마무리 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국민들은 30여년간의 마운드 생활을 접고 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茂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공주광역시 동구 금복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홍 보 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 화 생 활 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어 촌 매 주 부 2200-621	광 구 마 지 방 팀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기 획 서 사 인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